



중국산 필름 유입에 따른 OPP 업계 현황

Prospects and Effects From Chinese OPP Film

현재 OPP 필름 시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내수 경기 악화와 맞물려 저가 수입 필름의 유입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국산 수입 필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월 9백톤 정도의 수입필름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저가 필름은 2003년도부터 테이프용 등의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됐으며 점차적으로 라미네이션 합지용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테이프용 시장은 국내산 필름 가격도 많이 낮아져 내수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인쇄용 시장은 사용폭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중국산 수입 필름 판매가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OPP 필름업체들이 유저층에게 납기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 상황대처를 해왔다.

라미네이션 합지용 시장의 경우 환율차이로

인해 중국산 수입필름이 소량으로 유입됐을 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지난 해 환율차이로 인해 수입을 조금씩 포기하던 중국산 필름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필름이 가격적인 면에서 30% 이상이 싸지만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산 필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산 유광 합지의 가격은 톤당 50~60만원이며 무광 합지는 톤당 약 100만원 정도의 선으로 국내 합지용 필름과 비교하면 약 30%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필름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큰데 반해 원재료 인상분 가격을 즉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중국산 필름의 가격을 따라 갈 수가 없다.

사실상 필름 업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저가 수입 필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진 국내 큰 메이커들이 수입재

틈새 시장 노린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노력

품을 쓸 경우 최종 유저 식품생산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후에 큰 타격을 입을 염려가 있어 중국산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포장 업체들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의 포장 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쉽사리 중국산 필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종 유저들의 하청 업체와 거래하다 보니 업계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로 어쩔 수 없이 수입품 필름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

필름 업체들의 말을 따르면 대리점들 사이에서 수입품을 취급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의 경우 워낙 시장이 영세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선 수입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름 업체들의 공통된 말이다.

사실상 필름 업체들의 뚜렷한 대응책은 아직 없다.

중국의 OPP 생산 업체들은 1개라인 생산기준이 2,500톤에 달하는 고생산성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다 중국 현지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으로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환율이 떨어지면서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과 동시에 품질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필름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시장이 크게 이원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수입 필름을 사용하는 수요처와 사용하지 않는 수요처로 크게 두가지 시장으로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후에 가까운 일본처럼 고기능성 필름을 제외한 필름을 모두 수입제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OPP 필름 업체들간에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러나 납기일과 A/S 등 사후 관리와 관련한 국산 필름의 경쟁력으로 OPP 필름 시장이 중국 시장에 쉽게 잠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율의 변화와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중국 내수 시장의 활성화, 국내 경기 회복 등의 외부 조건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포장산업 뿐만 아니라 어느 타 산업도 마찬가지로 저가 수입제품 침투에 대한 어려움은 갖고 있다.

필름 업체들은 앞으로 국내 기업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틈새 시장을 노려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제품 납기일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경쟁력을 앞세워 현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